

2013년도 문화재위원회

제2차 세계유산분과 위원회 회의록

- ▣ 일 시 : 2013. 8. 27(화) 15:00
-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 ▣ 출석위원 : 이해은(위원장), 김동욱, 김정배, 김학범, 노순관
(장적), 노중국, 박상미, 이배용, 이수곤, 이주형,
임돈희 (총 11명)
-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목 차

【심의사항】

- | | | |
|---|-----------------------------|------|
| 1 | 서남해안 갯벌 세계유산 등재추진 사업대상지역 선정 | (공개) |
| 2 |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 대상 선정 | (공개) |

【검토사항】

- | | | |
|---|---------------------------|------|
| 3 |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 국문신청서 검토 | (공개) |
|---|---------------------------|------|

【보고사항】

- | | | |
|---|-----------------------------|------|
| 4 | 세계유산 등재추진 현황 보고 | (공개) |
| 5 | 한국의 전통산사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신청서 접수 | (공개) |
| 6 | 인류무형유산 등재 추진현황 보고 | (공개) |
| 7 |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현황 보고 | (공개) |

1. 서남해안 갯벌 세계유산 등재 추진 대상지역 선정

가. 제안사항

2011년 제1차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에서 세계유산 우선 추진대상으로 선정된 「서남해안 갯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갯벌 등재추진 대상지역 선정에 대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서남해안 갯벌」 세계유산 등재 사업 추진 대상 유산이 소재한 기초지자체 8개소 중 4개소가(고흥, 보성, 여수, 부안) 사업추진 불가 의사를 밝힘에 따라 원활한 사업추진이 어려움
- 이에 조속히 「서남해안 갯벌」의 세계유산 등재 대상지를 확정하여 이후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다. 유산개요

- 유산명 : 서남해안 갯벌(Southwestern Coast Tidal Flats)
- 대상지역
 - 전라남도 : 신안(다도해 섬갯벌) 여수, 순천, 보성, 고흥(灣갯벌/여자만)
 - 전라북도 : 고창, 부안 (灣갯벌/곰소만)
 - 충청남도 : 서천 (유부도 섬갯벌)
- 등재기준
 - vii) 최상의 자연현상이나 뛰어난 자연미와 미학적 중요성을 지닌 지역을 포함할 것
 - ix) 생태학적, 생물학적 주요 진행 과정을 입증하는 대표적 사례일 것
 - x) 현재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을 포함한 생물학적 다양성의 현장 보존을 위해 가장 중요하고 의미가 큰 자연 서식지를 포괄할 것

라.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

(1) 추진 경과

- 세계유산 등재추진 기본계획 수립 : '10.12~'11.12월

- 세계문화유산 우선추진 대상 선정(문화재위원회) : '11.2월
- 제1차 등재준비위원회 및 갯벌 포럼 개최 : '12.2월
- 서남해안 갯벌 현지 조사 및 포럼 개최 : '12.3~'13.1월
- IUCN 담당관 자문회의 개최 : '12.9월
- 등재준비위원회 최종회의 개최 : '13.2월
- 등재추진 대상 최종 확정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 통보 : '13.3월
- 등재추진 관련 기관 간 MOU 체결 : '13.5월

(2) MOU 체결 이후 상황

- 등재추진 1차 관계기관 회의 : '13. 5. 30
- 등재추진 2차 관계기관 회의 : '13. 6. 11
- 고흥군의 사업 추진 불가 최종 통보 : '13. 6. 25.
- 등재추진 3차 관계기관 회의 : '13. 7. 8.
- 사업에 대한 의견 제출 요청 : '13. 7. 11.
- 부안군의 사업추진 불가 통보 : '13. 7. 22.
- 전라남도의 의견 접수 : '13. 7. 29.
- 전라북도의 의견 접수 : '13. 8. 6.
- 전라남도 의견 접수 : '13. 8. 21

(3) 향후 계획

- 사업 추진 대상지 확정 : '13. 8. 27 ('13년도 제2차 세계유산분과위원회)
- 법인 설립 및 1차 이사회 개최 : '13. 9월 중
- 학술 연구 추진(데이터 수집·연구, 해외비교연구 등) : 연중

마. 전문가 의견

○ 000, 000, 000, 000, 000,:

- 완전성, 관리체계 등을 고려했을 때 만 단위로의 추진이 필요. 다만 각 지자체의 의지를 고려하여 1차적으로 신안과 서천을 추진하고, 이후 인근 지자체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고흥과 여수만을 포함하는 것이 좋을 듯함

○ 000 :

- 신안과 서천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짐. 추진 거부 의사를 밝힌 지자체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은 예정대로 진행하되 최종 신청서 작성 시 배제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000 :

- 곰소만과 여자만은 세계유산 등재에 필요한 곳이므로 둘을 모두 포함하여 세계유산 등재가 이루어져야 함

○ 000 :

- 현재 상태로는 추진 대상 갯벌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여자만과 곰소만은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런 경우 섬갯벌의 다양함을 보여줄 수 있고, 다른 지자체의 섬갯벌을 포함시킬 수 있는 명분이 생김.

바. 의결사항

○ 원안대로 가결함

- 1차적으로 신안·서천을 우선 등재추진토록 함. 곰소만과 여자만은 주민 설득을 통한 전체지역 참여를 위해 1년 유예기간을 두고 추진대상 포함 여부를 최종 결정하도록 함

○ 의결정족사항 : 원안가결 11명/ 출석 11명

2.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 대상 선정

가. 제안 사항

경남 지역 「가야고분군」의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 신청에 대한 사항을 부의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 사유

- 「김해 대성동과 함안 말이산의 가야고분」에 대한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 신청서를 경상남도지사가 제출한 바,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 추진 여부를 심의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경상남도지사
- (2) 대상문화재
 - 김해 대성동고분군 (사적 제341호)
 - 소재지 : 경상남도 김해시 대성동 434번지
 - 지정일 : 1919년 1월 9일
 - 함안 말이산고분군 (사적 제515호)
 - 소재지 :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도항리 484 등 562필지
 - 지정일 : 2011년 7월 28일
- (3) 명칭 수정
 - 종전 : 「김해 대성동과 함안 말이산의 가야 고분」
(경상남도 문화예술과-11604, 2013.06.27)
 - 수정 : 「가야 고분군」(경상남도 문화예술과-14581, 2013.08.20)
 - 수정사유 :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만족하는 경상남도 소재 가야 유적 발견 시 이를 포섭하기 위함.
- (4) 신청내용
 - 가야 당시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으며 지금도 잘 보존·관리되고 있어

문화적 가치가 뛰어난 김해 대성동고분군과 함안 말이산고분군을 세계 유산 잠정목록으로 등재 신청함.

○ 유산의 뛰어난 보편적 가치

- 김해 대성동과 함안 말이산 고분군은 지금으로부터 약 1500년전에 만들어진 고고유적으로, 소멸된 고대국가 가야 문명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물임. 또한 역사의 중요한 단계를 보여주는 탁월한 사례가 될 수 있는 특정 유형의 건조물로 분류 가능하므로 세계문화유산 등재기준 iii, iv에 해당. 한편 가야고분군은 한반도와 일본 열도에서 고대국가의 형성·발전기(서기 3~6세기)에 만들어진 특징적인 거대 기념물로 동북아시아 문화권의 정치와 사회, 군사, 사상 등의 고대문화가 관류하는 살아있는 역사적 증거물임.

○ 등재 조항

iii. 현존하거나 이미 사라진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독보적 또는 적어도 특출한 증거일 것.

- 가야 고분군은 1500여년전 만들어진 고고유적에 해당하고 소멸된 가야 문명의 존재를 보여주는 '증거'에 해당하며 중국, 한국, 일본을 포함한 동북아시아 문화권의 역사발전 단계의 탁월한 사례가 될 수 있는 특정 유형의 건조물에 해당함. 또한 가야고분군과 그 속에 부장된 유물들은 가야시기의 여러 아이디어나 문화를 반영하는 살아있는 역사적 증거물에 해당함.

iv. 인류 역사에 있어 중요 단계를 예증하는 건물, 건축이나 기술의 총체, 또는 경관의 탁월한 사례일 것.

- 가야 고분군은 동북아시아 문화권의 여러 국가들이 고대국가로 발전하는 단계에 축조된 것으로 주변국들과 공존했던 가야인들의 존재를 알려주는 유일한 증거들이며, 가야인들이 남겼던 독특한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물적 증거일 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역사발전 단계를 보여주는 사례로 인류사에 특별한 가치를 지님.

라. 현지조사 결과 및 검토의견

○ 조사자 및 조사일자

- 조사자 : 000 세계유산분과 위원, 000 매장문화재분과 전문위원, 000 문화재청 상근 전문위원

○ 조사일자 : 2013.8.16.(금)

○ 검토의견

- 동 고분군은 각각 금관가야와 아라가야의 역사와 문화를 보여주는 좋은 자료이며, 두 가야의 형성과 성장과정, 인근 지역과의 문화교류 등을 보여주는 문화자산임과 동시에 탁월한 역사적 경관을 연출하고 있음.
- 두 지역은 모두 사적으로 지정되어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잘 관리되고 있으며, 지역민의 지지도도 높아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할 가치가 있음.
- 다만 경상북도의 고령 지산동 고분군도 함께 묶어 세 유산을 연속유산으로 신청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 또한 경남과 경북의 일부 지역 가야 고분군을 향후 포섭할 상황도 고려하여, 유산 명칭을 ‘가야고분군’으로 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것.
- 또한 향후 추진과정에서 지속적인 국내외 유산과의 비교연구를 통해 제안된 세계유산 등재기준을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며, 별도의 ‘세계유산지역’과 ‘완충지역’ 경계 설정이 필요할 것.

마. 문화재청 검토의견

- 김해와 함안의 가야 고분군은 가야 문명의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으며, 완전성 및 진정성을 갖추고 있어 잠정목록등재 신청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 다만, 본격적인 세계유산 등재추진 시에는 경북 고령의 대가야고분군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사. 의결사항

- 원안대로 가결함
 - 잠정목록 등재신청명은 ‘김해·함안 가야고분군’으로 수정토록 함
- 의결정족사항 : 원안가결 11명/ 출석 11명

3.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 국문신청서 검토

가. 검토사항

2014년도 세계유산 등재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인 「백제역사유적지구」의 국문신청서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

(1) 추진 경과

- 세계문화유산 우선추진 대상 선정(문화재위원회) : '11.2월
 - 「백제역사유적지구」로 통합(공주·부여 + 익산)
-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충남·전북도) : '11.8~9월
- 등재추진 관련 기관 간 MOU 체결 : '11.12월
- 백제역사유적지구 등재추진 준비위원회 개최 : '12.2월
- (재)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등재추진단 발족 : '12.5월
- 등재신청서 작성 용역 : '12.7~'13.6월(진행중)
 - OUV 도출, 비교연구, 등재신청서 및 보존관리계획서 작성 등
- 세계유산협약 40주년 기념 국제회의 개최 : '12.9월
 - “세계유산보존과 지역공동체의 역할”(아시아 지역에서의 개념과 실천)
-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 국제학술회의 개최 : '13.2월
- 등재신청서 작성 학술용역 추진 : '13.6월까지
- 등재신청서 국문본 문화재청 제출 : '13.8.19

(2) 향후 계획

- 등재신청서 초안 제출 : '13.9월
- 등재신청서 부속자료 작성 및 보존관리계획 수립 : '13년 하반기
- 등재신청서 최종안 제출 : '14.1월

다. 주요내용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대한 진술>

(1) 간략한 진술

- 백제역사유적지구는 충청남도 공주시, 충청남도 부여군, 전라북도 익산시에 분포하고 있다. 백제는 기원전 18년에 한강 유역, 지금의 서울시 강동구, 송파구 일원에서 시작하여 475년 웅진, 지금의 공주로 천도하였고, 다시 사비 즉 부여로 538년에 천도하였으며 660년 신라와 당나라의 연합군에 의해 멸망하였다. 수도의 변천에 따라 백제는 한성백제, 웅진백제, 사비백제로 지칭된다. 백제역사유적지구는 바로 웅진백제와 사비백제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 이러한 백제의 위치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한 중심에 있으면서 중국으로부터 받아들인 문명을 백제 고유의 문화로 승화시켰고 이러한 문화는 다시 일본으로 전파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문화교류의 물질자료는 특히 웅진백제기, 사비백제기에 형성된 문화유산에서 잘 나타내고 있다. 이에 기초하여 형성된 백제역사유적지구의 물질문화는 당시 함께 존재했던 고구려와 신라에서 찾기 힘들며 동아시아 다른 국가나 다른 문명권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사례이다.

(2) 세계유산 등재 신청의 기준

ii. 오랜 시간 동안 또는 세계의 어떤 문화지역 안에서 일어난 건축, 기술, 기념비적 예술, 도시계획 또는 조경설계의 발전에 관한 인간적 가치의 중요한 교류를 보여주는 것.

- 백제역사유적지구는 백제 웅진시대(475~538)와 사비시대(538~660)의 왕성(王城), 왕실 묘제, 도성 방어시설, 종교시설, 왕실 별궁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유적은 공주, 부여, 익산에 분포되어 있으며, 백제 후기의 건축, 도시계획, 조경사 적으로 동아시아 지역 문화의 교류 흔적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
- 백제는 기원전 18년부터 서기 660년까지 한반도의 서남부 지역에 존재했던 국가이다. 백제의 역사에서 웅진시대와 사비시대는 금강유역에 왕도를 설치하고 중국, 일본 등과 활발한 국제 간 교류를 이루고 있었다. 이 시기 백제는 지역 간 국제교류를 통하여 문화적인 역량을 높여갔다는 사실을 현존하는 유적과 문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iii. 문화적 전통, 또는 살아 있거나 소멸된 문명에 관하여 독보적이거나 적어도 특출한 증거가 있는 것.

- 백제역사유적지구에 현존하고 있는 유적은 475년에서부터 660년까지 한반도 서남부 지역에 살았던 백제인들의 문명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공산성, 사비성 및 관북리 유적은 왕도의 문명을, 송산리 고분군은 백제 왕실의 묘제 문명을, 정립사지와 미륵사지는 백제 사찰건축의 문명을, 익산 왕궁성은 백제 후기 별궁의 문명을 볼 수 있는 증거가 된다.

iv. 인류 역사의 중요한 단계(들)를 잘 보여주는 건조물의 유형, 건축적 또는 기술적 총체, 또는 경관의 탁월한 사례인 것

- 백제역사유적지구에 현존하고 있는 송산리 고분군, 공산성, 사비성과 부여나성, 정립사지 및 정립사지 5층 석탑, 익산 왕궁성, 미륵사지 및 미륵사지 5층 석탑은 백제의 풍토와 불교이념을 바탕으로 백제의 건축과 조경을 예술적, 기술적으로 탁월하게 반영하여 백제건축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 백제는 한반도 서남부 일대 강 유역에서 국가를 형성하였으며, 발달된 해양문화와 능동적인 개방성을 지니고 있었다. 백제는 이를 바탕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우수한 문화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3) 완전성

- 백제역사유적지구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는 등재기준 (ii),(iii),(iv)를 충족시키고 있다. 백제역사유적지구는 백제의 웅진시대와 사비시대의 왕성, 왕실묘제, 도성방어시설, 종교시설, 왕실 별궁으로 구성되며 동아시아의 문화교류를 입증하는 동시에 백제 후기의 대표적인 백제문화를 보여주고 있다. 왕성인 공산성과 부소산성, 왕실묘제를 대표하는 송산리 고분군, 도성방어시설의 대표성을 표출하는 부여나성, 종교시설인 불교사찰의 정수를 보여주는 정립사지와 미륵사지, 그리고 왕실별궁인 익산 왕궁성이 더하여 백제의 고도로 발달한 문화를 그대로 나타낸다.
- 백제문화를 대표하는 이들 유적들은 모두 국가 사적으로 지정되어 모두 사람이 거주하고 있지 않는 문화재로서 보호 관리되기 때문에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유산지역에 비하여 관리가 잘 이루어져 있다. 유산의 분포는 행정구역상 세 지역으로 나뉘어 있으나 문화재청과 각 시군에서는 국가문화재, 도 문화재, 시·군 문화재로 나누어 적절하게 관리를 잘 하고 있다. 특히 모두 문화재보호법의 영향 하에서 문화재로 등록된 유적지구 뿐만 아니라 그 주변지역까지 보호되고 있어 백제역사유적지구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나타내는 유적의 보존은 완전성의 측면에서 볼 때 필수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4) 진정성

- 백제역사유적지구는 백제(기원전 18~660)시기 중 후반기에 해당하는 6세기 이후에 만들어진 유적이다. 이즈음의 백제는 국가성장이 정점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고대 동아시아 문물교류의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였다. 백제는 중국의 문화를 도입하여 이를 자체적으로 소화하고 백제적인것으로 재창조하여 강력한 문화국가의 면모를 갖추었다. 나아가 주변의 여러나라에 백제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확산시킴으로서 동아시아 고대사회의 문화발전에 크게 공헌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유산들은 이러한 백제의 모습을 그대로 함축하고 있어 당시 동아시아에서 백제가 차지하였던 정치·사회·문화의 위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5) 보전과 관리에 대한 요건 충족

- 백제역사유적지구의 보존 관리에 근거가 되는 법제도는 「문화재보호법」과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며 「국토계획법」 등과 같은 타 부처 행정법, 해당 지자체의 각종 조례 등 다양한 법률이 규제 체계로 작동하고 있다.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하여 백제역사유적지구의 단위문화재를 국가지정 및 지방문화재로 지정하여 핵심지역뿐 아니라 완충지역에서의 건축행위 및 개발행위, 토지의 형질변경 등 문화유산의 진정성과 완전성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까지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국토계획법에서는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에 대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지정을 통해 건폐율, 용적률, 건축제한 및 일부행위제한 등을 다루며 문화재보호법에서 시행할 수 없는 행위들을 제한하여 문화재 보호 관리에 도움을 주고 있다. 그 외에도 각종 행정지침과 규정을 통해 백제역사유적의 보존과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 백제역사유적지구가 국가지정문화재이므로 보존을 위한 재정은 국비와 지방비로 이루어진다. 문화재보호법 제51조에 의거,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은 문화재청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수·정비사업의 경우 국비와 지방비의 비율이 70:30으로 운영되며 지방비는 도비와 시·군비의 비율이 50:50으로 운영되고 있다.
- 백제역사유적지구의 현재 보존 상태는 백제역사유적지구가 가지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에 근거하여 유산별 보존의 여건과 유산의 보존상태로 나누어 기술할 수 있다. 유산별 보존의 여건은 대상유적별로 입지 및 교통여건 등 지리적여건과 자연환경여건, 토지이용 및 도시계획현황, 주변 문화재 분포현황 등의 인문사회 환경여건으로 구분하였고, 유산의 보존상태는 대상유적별로 발굴조사 연혁, 정비보수 실적, 개별 유산내 단위유구의 보존상태로 구분하였다.

- 백제역사유적지구의 보존 및 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개발압력, 환경압력, 자연 재해 및 재난 대비, 방문객 및 관광 산업의 압력, 토지 이용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대부분의 대상물들이 고도의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어 주로 대상물 주변으로 보존차원의 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개발압력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할 수 있으며, 주변에 이루어지고 있는 개발계획들은 대상지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다.
- 그러나 현재 시가화가 진행된 지역에 위치하는 대상물들은 주로 매연이나 소음에 의한 환경압력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며, 관광에 의해 미시적으로 발생하는 환경적 압력에는 대비가 필요하다. 백제역사지구에 대한 지속적인 보존을 위해서는 적절한 수용능력을 고려하여 방문객을 계측하고, 다양한 법적 수단을 이용하고자 한다. 특히 각 유산에 맞는 보존 및 관리 계획과 모니터링을 통하여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라. 의결사항

○ 조건부 가결 함

- 명칭문제 등 보완사항에 대해 차기 세계유산분과위원회에 보고토록 함

○ 의결정족사항 : 조건부 가결 11명/ 출석 11명

4. 세계유산 등재추진 현황 보고

가. 보고사항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된 유산 중 현재 등재 신청서를 준비 중인 「한국의 서원」, 「한양도성」에 대한 상세 보고와, 기타 「대곡천암각화군」, 「우포늪」, 「염전」, 「남해안일대 공룡화석지」, 「강진도요지」, 「낙안읍성」,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 현황을 서면보고합니다.

나. 보고내용

□ 등재신청서를 준비 중인 유산

<한국의 서원>

(1) 추진 경과

- 세계유산 등재추진 검토자문회의 : '09.9월
 - 세계유산(잠정목록)등재 가능성 검토, 추진방안 등 논의
- 1~5차 추진간담회 : '10.10~'11.3월
 - 세계유산 등재 로드-맵 및 통합관리체계 구축관련 논의
 - 추진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구성안 협의
- '한국의서원세계유산추진위원회' 발족 : '11.4월
- 등재 타당성 검토를 위한 서원 현지조사 : '11.4~6월
-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 확정 : '11.12월
- 관계기관 합동 MOU 체결 : '12.3월
- '한국의서원세계유산등재추진단' 발족 : '12.4월
- 등재신청서 및 보존관리계획서 작성 : '12.8~'13.9월
- 전국학술대회 개최(장성 필암서원) : '13.4월
- 제2차 국제학술대회 개최(영주 동양대학교) : '13.5월

(2) 향후 계획

- 등재신청서 부속자료 작성 및 보존관리계획 수립 : 2013년 하반기
- 서원총서 영문판 제작 및 관련 자료(고전적·제향·현판 등) 제작 : 연중

<한양도성>

(1) 추진 경과

- 한양도성 보존·관리·활용 종합계획 확정 : '12.6월
- 전담 조직 발족(한양도성도감) : '12.9.28
-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 : '12.11월
- 제1차 국제학술대회(역사도시와 도시성곽) 개최 : '13.2월
- 서울시 - 문화재청 간 문화재 보존관리에 관한 MOU 체결 : '13.5.16

(2) 향후 계획

- 학술총서 발간 : '13.5월(I권) 및 '14.2월(II권)
- 멸실구간(남산식물원, 남산 백범광장) 발굴조사 : '13.8월
- 한양도성 보존·관리·활용 종합 마스터플랜 수립 : '13.8월
- 제2차 국제학술대회(동아시아 도성제와 도시형태) 개최 : '13.10월
- 한양도성 세계유산등재신청서 작성 : '13.9~'14.6월

□ 기타 유산

<대곡천 암각화군>

(1) 유산개요

- 유산명 : 대곡천 암각화군 / Daegokcheon Stream Petroglyphs

유산명	북위	동경
반구대 암각화	35도 26분 50초	129도 10분 28초
천전리 암각화	35도 36분 53초	129도 10분 25초

○ 소재지

- 반구대 암각화 :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반구대안길 285
- 천전리 암각화 :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산210

○ 지정현황

- 국보 제285호 :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1995.06.23]
- 국보 제147호 : 울주 천전리 각석[1973.05.04]

○ 유산 설명

- 반구대 암각화의 제작 연대는 신석기 말에서 청동기 시대로 추정되고 있으며, 현재 남아 있는 부분만으로도 암면에 300개 가량의 많은 암각화와

육지와 바다를 생활배경으로 삼은 다양한 인물과 동물의 모습이 어우러진, 세계적으로 매우 독특한 암각화.

- 천전리 각석은 선사시대에서 역사시대에 이르는 긴 시간에 걸쳐 네 개의 층위를 가진 독특한 유적. 각각의 층위는 각 시대의 문화를 상징하는 동상과 인물상 암각화, 추상 암각화, 동물과 인물상 선각화, 명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하나의 바위가 수 천 년의 인류 역사를 함께 보여주는 유적으로 세계적으로 예가 드문 중요한 유적임.

○ 잠정목록 등재일 : 2010.01.11.

○ 등재기준

iii. 문화적 전통, 또는 살아 있거나 소멸된 문명에 관하여 독보적이거나 적어도 특출한 증거가 되어야 한다.

- 대곡천 암각화군은 신석기~역사시대의 긴 시간동안 교차하는 여러 문화 단계와 그 주체들의 생업과 신앙형태가 반영되어 있음.
- 특히 고래잡이 등 해양어로문화의 전통을 표현한 탁월한 유적.

(2) 추진경과

- '10.01.11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
- '11.12~'12.12 대곡천 암각화군 보존학술조사 연구용역 추진
- '13.05~'13.07 대곡천 일원 문화·자연유산 연구논저목록 조사 연구
- '13.8.5~8.9 대곡천 암각화군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전문가 포럼

(3) 향후 계획

- '14~'16 대곡천 암각화군 타 유산 비교분석 및 OUV규명 연구
- '14~'17 국제학술대회, 특별전시 등 가치제고 및 홍보
- '16~'17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우포늪>

(1) 유산개요

- 유산명 : 창녕 우포늪
- 소재지 : 경상남도 창녕군
- 지정현황 : 천연기념물 제524호('11.01.13.)
- 유산 설명

- 창녕 우포늪은 경상남도 창녕군에 위치하는 대한민국 최대의 자연배후습지로 약2.3km의 면적에 걸쳐 형성된 내륙습지이며, 그 주변으로도 크고 작은 규모의 습지들이 형성되어 있음. 특히 우포늪은 1998년 랍사르 습지로 등록되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음
- 우포늪은 오늘날 대한민국 지형의 탄생과 그 기원을 같이하며, 원시생태계를 그대로 유지한 채 지속적으로 인간 삶의 터전을 제공하고 있음. 또한 10여종의 멸종위기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점은 전세계적으로 주목됨.
- 2004년 발견된 부곡면 비봉리패총 유적은 동아시아 권역에서 매우 중요한 고고학적 가치를 지니는데, 이를 통해 과거에는 낙동강을 따라 바닷물이 창녕 내륙까지 들어왔음을 확인할 수 있음. 우포늪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습지유적이 인류와 어떠한 관계를 가져왔는지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유적임.

○ 등재기준

vii. 최상의 자연 현상이나 뛰어난 자연미와 미학적 중요성을 지닌 지역을 포함할 것

- 우포늪은 계절별로 수많은 수생식물과 철새들을 관찰할 수 있어 천혜의 생태 교육자원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다양한 동식물들이 서식할 수 있는 중요한 서식처로서 기여하고 있을 뿐 아니라 뛰어난 경관을 만들어내고 있음.

x. 과학이나 보전 관점에서 볼 때 보편적 가치가 탁월하지만 현재 위협받고 있는 종을 포함한 생물학적 다양성의 현장 보전을 위해 가장 중요하고 의미가 큰 자연 서식지를 포괄할 것

- 우포늪은 철새의 서식처로서도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어 1998년 랍사르협약의 사이트로 지정·보호받고 있음. 이곳에서 발견되는 조류 종수는 180종이 넘으며, 이 중 청머리오리 (*Anas falcate*), 가창오리 (*Anas formosa*) 등 IUCN Red Data Book에 등재된 멸종위기종이 우포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고, 이 외 철새들의 중간 기착지 또는 먹이섭취원이 되어 지역 생물다양성의 핵심 지역으로 기능함. 또한 우포에서 서식하는 자생 가시연 군락은 동아시아권에서 가장 큰 자생군락 중 하나이며, 한국 내에서도 100군데 이상 분포하던 자생군락지가 점차 사라지고 있는 추세여서 국가 차원에서 보호받고 있는 상황임.

(2) 추진경과

- '97년 우포늪 자연생태계보호지역(8.54km²)으로 지정

- '10. 11 ~ '12. 10 경상남도 랍사르환경재단, MAB 등록(BR지정)관련 신청서 작성 및 검토
- '12. 11. 29 BR 지정을 위한 타당성 검토 전문가 학술심포지엄
(주관:랍사르재단)

(3) 향후 계획

- 세계문화유산적 가치규명을 위한 국제학술대회 ('13. 10월)
- 우포늪 탁월한 보편적 가치 발굴을 위한 학술용역 실시 : '14. 4 ~12
-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후 세계유산 등재 추진

<염전>

(1) 유산개요

- 유산명 : 염전 / Salterns

유산명	북위	동경
영광 염전	35도 15분 58초	126도 19분 56초
신안 염전	34도 59분 35초	126도 10분 34초

○ 소재지

- 영광 염전

- 백수 염전 : 전남 영광군 백수읍 하사리 일원
- 염산 염전 : 전남 영광군 염산면 송암리, 봉남리 두우리 일원

- 신안 염전

- 증도 태평염전 - 전남 신안군 증도면 증동리 1931
- 비금도 대동염전 - 전남 신안군 비금면 가산리 213-35 외

○ 지정현황

- 등록문화재 제360호 : 신안 증도 태평염전[2007.11.22]
- 등록문화재 제362호 : 신안 비금 대동염전[2007.11.22]
- 등록문화재 제361호 : 신안 증도 석조 소금창고[2007.11.22]

* 신안 갯벌(증도) : 습지보호지역[습지보전법](31.30km² / 2010.1.29)

* 신안 갯벌(증도) : 도립공원[자연공원법](12.824km², 육지 0.737, 해면 12.087 / (2008.06.05)

* 영광 염전 : 등록문화재 등록 신청

○ 유산 설명

- 염전은 전라남도 신안군과 영광군에서 갯벌을 이용하여 천일염을 생산하는 염전 및 관련시설을 말함. 동 지역의 염전은 소금 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영광에서 생산되는 굴비 등의 연관 산업에 직접적으로 이용되므로 산업적 중요성이 현재에도 매우 큼.
- 또한 동 지역의 제염법은 가장 단순한 구조물(염전)과 갯벌, 햇볕, 바람을 이용하여 매우 독창적이라고 볼 수 있음. 특히 이곳의 해주[함수창고]는 함수를 보관하는 시설로서 장마기에 비를 대비하여 만든 시설인데,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에만 있는 시설임.
- 대한민국의 천일염전은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인 한국 서해안에 주로 분포하여 갯벌 천일염으로서 중요하며 국제 보호종인 도요물떼새와 저어새 등 철새의 휴식공간이기도 해 생태계의 지속성, 경제적인 지속성, 지역문화의 지속성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함.

○ 잠정목록 등재일 : 2010.01.11

○ 등재기준

iii. 독특하거나 지극히 희귀하거나 혹은 아주 오래된 것

- 갯벌을 이용한 소금의 생산은 갯벌의 화학적 조성 및 물리적 특성을 고려한 독창적인 사례임.

v. 환경과 인간의 상호작용이나 문화를 대변하는 전통적 정주지나 육지의 사용, 바다의 사용을 예증하는 대표적 사례일 것

- 염전은 환경과 사람의 상호작용의 효과적인 산물이며 해양이용의 탁월한 사례이며 지역의 자연환경을 이용하여 예부터 생활에 중요한 소금을 생산하여 활용한 생활문화의 지속성을 보여줌

(2) 추진경과

- '07.10~'08.08 잠정목록 정비 연구 조사와 검토
- '08.10.29 문화재청 세계유산자문단회의 신규 잠정목록 신청 결정 : 2건 (서남해안 갯벌, 염전)
- '08.11.29 중앙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 분과위 보고
- '08.11.-12. 전문가 현지조사 및 신청서 작성(문화재청/전남도)
- '09.01.-04. 유사유산의 비교(국내외) 등 신청자료 보완 제출

- '09.06-12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신청서 작성, 제출
- '10.01.12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
- '10.12~'11.12 세계유산 등재 추진 기본계획 수립

(3) 향후 계획

- '10.12-'11 세계유산등재 기본계획 수립(도비 25백만원)
- '11-'14 학술조사(명칭, 대상, 범위, 기준 등), 관련기관 협의(지자체, 중앙부서, 주민 등), 국제 비교연구, 보존계획 수립
- '15-'16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남해안 공룡화석지>

(1) 유산개요

- 유산명 : 남해안일대 공룡화석지 (Sites of fossilized dinosaurs throughout the Southern seacoast)
- 신청 : 한국의 백악기 공룡해안(Korean Cretaceous Dinosaur Coast-KCDC)
- 소재지 : 경남 고성군, 전남 해남군, 전남 여수시, 전남 보성군, 전남 화순군
- 지정현황

구분	지정
경남 고성군	천연기념물 411호
전남 해남군	천연기념물 394호
전남 여수시	천연기념물 434호
전남 보성군	천연기념물 418호
전남 화순군	천연기념물 487호

- 유산 설명
 - 남해안일대 공룡화석지는 매우 넓은 규모이면서 보존상태가 완벽한 공룡알 화석산지이며, 세계최대 규모의 익룡발자국화석과 가장 오래된 물갈퀴 발자국 등이 특징적인 곳임. 또한 이곳은 중생대 백악기 세계 최대 규모의 공룡발자국 화석산지이며 매우 다양한 공룡화석이 산출되고 있어 학술적·역사적 가치가 매우 큼
- 잠정목록 등재일 : 2002.1.25
- 등재기준 vii, viii, x (신청 viii)

(2) 추진경과

- '02.01.25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
 - 경남 고성, 전남 해남·화순·여수·보성의 화석지 공동 등록 세계자연 유산 등록 ⇒ 전라남도 주관 추진
 - 추진상황보고회 및 국제심포지움, 학술발표 등 : 27회
 - '07.04.' 세계유산 등재 업무협약(문화재청장, 전남·경남지사)
 - '08.01.23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 제출
 - 명칭 : 한국백악기공룡해안
 - 기준 : viii 지구의 역사와 지질학적 특색
 - '08.10.18-10.25 IUCN(세계자연보전연맹) 전문가 실사
 - '09.05 IUCN 평가 결과 공개(등재불가) : 공룡화석 분야의 연구가 세계적으로 초기단계임에 따른 연구 축적 부족, 발자국 화석만으로는 세계유산적 가치가 부족함
 - '09.05.18 등재신청서 철회 : 향후 등재 추진 가능성으로 고려
 - '09.5-현재
 - 현지유산 관련 : 안내판 개선 등 현지 정비 추진
 - 세계유산 관련 : 국제 동향(세계유산위원회, 관련 학계 등) 수집
 - '11.5-9 남해안공룡화석지 세계유산 등록 추진과제 연구용역
 - 연구주관 : 문화재청, 한국공룡연구센터
 - 연구결과 : 발췌요약자료 참조
- * 최종보고서는 한국공룡연구센터에서 문화재청 제출

(3) 향후 계획

- 공룡화석 세계유산 등재 관련 전문가(TF팀, 문화재청, IUCN, 유네스코, 문화재위 등) 정책회의(문화재청 주관 예정)
- 주민건의사항에 대한 예산 연차 추진 국가문화재로 보존관리

<강진 도요지>

(1) 유산개요

- 유산명 : 강진 고려청자 요지
- 소재지 : 전라남도 강진군 대구면 일대

- 지정현황 : 사적 제68호(1963.01.21.)
- 유산 설명
 - 전라남도 강진군 대구면 일대는 고려시대 전시기(10세기~14세기)의 요지가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이곳에서 출토되는 도자기 조각들은 기형과 기법, 채색 등이 다양하여 고려자기의 발생 및 그 발전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임
 - 또한 동 지역 일대에는 고려시대 청자와 도기를 구웠던 183개의 가마터가 분포하고 있으며, 이 중 보존상태가 좋은 98개의 가마터를 사적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음. 이 지역 대부분의 가마터는 10세기 후반에서 11세기 중엽에 성립된 초기 청자가마터로서 청자의 기원과 초기청자의 특징을 밝힐 수 있는 중요한 지역임.
- 잠정목록 등재일 : 1994.09.01
- 등재기준 : (ii), (iii), (iv), (v), (vi)

(2) 추진경과

- '94.9.1.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 등록
- '97.9.3. 청자자료박물관 개관
- '05.5.27. 도예문화원 개관
- '06.6.30.~8.31.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와 리모쥬시 전시회(12점)
- '07.6.7.~7.13. 일본 6개도시 순회전(도쿄, 나고야, 카사마, 마시코 등)
- '08.5.9.~7.12. 미국 6개도시 순회전(워싱턴, 뉴욕, 애틀란타, 시카고 등)
- '09년 유럽 8개국 9개 도시 순회전
- '09년 강진 도예학교 개교(대구면 저두분교 리모델링)
- '10~'11년 대구면 고려청자 요지 종합정비계획 학술연구용역 및 문화재 지표조사
- '12.10.17.~18. 강진 고려청자 요지 세계유산 등재 추진 국제학술심포지엄 개최
- '12년 대구면 사당리 43호, 용운리 63호 요지 정밀학술발굴조사

(3) 향후 계획

2014	2015	2016	2017	2018
- 세계문화유산 등재 기본계획 수립(학술용역)	- 제2회 국제 학술심포지엄	세계문화유산 심의위원회 평가	등재신청 학술용역	세계문화유산 등재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학술용역) - 세계문화유산 추진위원회 구성 (강진 고려청자 요지 보존회, 학술자문위원회 등) - 고려청자 요지 정밀발굴조사 (지속적인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려청자 요지 정밀발굴조사 (지속적인 추진) 			
---	--	--	--	--

<낙안읍성>

(1) 유산개요

- 유산명 : 낙안읍성
- 지정현황
 - 국가지정 : 사적(낙안읍성), 중요민속문화재 9개소(읍성내 중요민속가옥 9동)
 - 도지정 : 유형(낙안객사), 기념물(낙안읍성 노거수) 문화재자료(임경업장군비각)
- 유산 설명
 - 낙안 읍성은 조선시대의 행정 치소[邑治] 구실을 한 중세 지방도시의 중심지로서 그 역할을 담당하며,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 유적임. 이곳은 고려시대(918-1392)와 조선시대(1392-1910)에 낙안군 행정중심지로서 기능하면서 공공영역인 관아와 성곽, 생활영역인 민가군, 자연경관이면서 의례영역으로 활용되는 마을 숲 등을 잘 갖추고 있음
 - 또한 이 지역은 행정의 역할을 담당하였던 읍치가 현존하는 곳으로도 유일하며 농경사회를 대표하는 초가집, 전통적인 세시풍속과 의례 등이 전승되고 있음. 조선왕조 이후 600여년 지방의 행정치소로서 중세 지방 계획도시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마을 주민이 실제로 전통적인 생활방식을 간직한 채 살아 숨 쉬고 있는 곳임,
- 잠정목록 등재일 : 2011.3.11
- 등재기준 : (iii), (iv), (v), (vi)

iii. 현존하거나 이미 사라진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독보적 또는 적어도 특출한 증거일 것.

- 낙안읍성은 고대에 자리 잡았고 조선시대(1392-1910)에 석성으로 쌓은 뒤 행정과 상공업의 중심지가 된 읍치의 성격을 가장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사례이며 토속적인 민속경관과 자연경관은 조선시대 읍치 경관을 살피는 증거임.

iv. 인류 역사에 있어 중요 단계를 예증하는 건물, 건축이나 기술의 총체, 또는 경관의 탁월한 사례일 것.

- 낙안읍성의 읍치경관을 이루고 있는 성곽, 관아(와가), 민가(초가), 노거수, 비각 등 읍성 건축물은 유교 이념, 자연 조화를 기술적, 예술적으로 탁월하게 반영하여 한국 전통건축과 읍치경관의 특징을 보여 주고 있음.

v. 특히 번복할 수 없는 변화의 영향으로 취약해졌을 때 환경이나 인간의 상호작용이나 문화를 대변하는 전통적 정주지나 육지의 사용, 바다의 사용을 예증하는 대표적 사례일 것

- 낙안읍성은 자연지형을 이용하여 형성된 점과 바다(남해안)와 육지의 연결 통로가 되는 지리적 요충지로서 조선시대 성읍 취락과 전통적 정주지의 탁월한 사례임. 낙안 읍성마을은 아직도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살아 있는 유산으로서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산업화, 도시화, 현대화로 인하여 훼손될 위험성에 대응하기 위한 보존이 필요.

vi. 사건이나 실존하는 전통, 사상이나 신조, 보편적 중요성이 탁월한 예술 및 문학작품과 직접 또는 가시적으로 연관될 것

- 낙안읍성에 있는 성곽, 관아, 민가, 비각 등은 조선시대 읍성마을 유지했던 행정과 상공업 활동의 근거지였고, 판소리와 가야금 명창의 등의 활동 무대였음. 그리고 풍물군악과 마을제 등의 무형유산은 조선시대 지방도시의 문화를 이해 할 수 있는 무한 가치를 지닌 유산임.

(2) 추진경과

- '85. 7 낙안종합정비계획수립 (세부현황 종합보고서)
- '01. 12 학술조사보고서 간행 (낙안과 낙안읍성)
- '03. 2 관계전문가 학술세미나 개최
- '04. 2차 종합학술조사 실시계획
- .08. 3 ~ '08.12 낙안읍성 건물물 도면 CAD 작업
낙안읍성 관련 학술논문 자료집 작업 완료
- '09. 10 ~ '09. 2 낙안읍성 학술자료집 제작
- '10. 10 ~ '11. 5 낙안읍성 역사·민속 학술조사 및 국제학술대회 실시
낙안읍성 홍보 다큐멘터리 제작
- '11년 낙안읍성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국제학술회의(2.24)

- '11년 낙안읍성 보존관리계획 수립
- '12년 낙안읍성 보존관리계획에 대한 국제 학술대회 개최
낙안읍성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추진전략 국제 학술회의 개최

(3) 향후 계획

- '13년 낙안읍성 세계문화유산 등재 신청서 작성
- '14년 낙안읍성 세계문화유산 등재서 제출
- '15년 낙안읍성 세계문화유산 등재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1) 유산개요

- 유산명 : 설악산천연보호구역
- 소재지 : 강원도 속초, 인제, 고성, 양양
- 유산 설명
 -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은 강원도 4개시군(속초, 인제, 고성, 양양)에 걸쳐 있는 자연유산으로서 최근 설악산 일부 지역이 국립공원에서 제척이 되고 자연공원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개발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음
 - 설악산의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위해서는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에 대한 체계적인 학술조사·연구 등을 통해 유네스코의 자연유산 등재기준에 적합토록 자료를 구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세계자연유산등록 철회(1996.6.26) 이후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에 대한 체계적인 학술조사 등 진행사항이 없음
 - 또한,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위해 관계전문가의 자문 결과, 설악산천연보호구역의 세계자연유산 등재 가능성은 1996년과 현재의 여건은 많은 변화를 가져와 현시점에서 등재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해도 어려울 것이란 소견을 얻음
 - 이렇듯 세계유산 등재의 여건 변화와 함께 여전히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우리시의 일부 반대론자들의 인식이 변화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속초시는 등재 추진에 소극적인 상황임.

(2) 추진경과

- 세계자연유산등재 잠정목록 등재 : 1994. 9월
- 세계자연유산등재 신청(문화체육부 문화재관리국) : 1995. 11. 1

- 신청면적 : 173.7km²(국립공원설악산의 46.56%)
- 등재신청 찬성표명 성명서 발표(환경연합 등 16단체) : 1995. 11. 23
- 등재신청 반대표명(설악산 세계자연유산등재 반대투쟁위원회 결성-속초시번영회 등 50단체) : 1995. 12. 27
- 설악산 자연유산등재 반대 서명운동 전개 : 1996. 1. 11부터
- 설악산 세계자연유산 등재관련 속초시 입장 제출 : 1996. 1. 15
 - 시민단체중 반대표명의 세력이 강한 비중 차지, 유산등재 범위 축소조정 및 일부지역의 국립공원구역 해제조치 선행 요구
- 설악산 세계자연유산 등재관련 회의 : 1996. 1. 16
 - 4개시군 모두 반대입장 표명(지역개발에 장애요인 제거 후 등재)
- 설악산 개발을 저해하는 자연유산등재 반대결의문 채택 : 1996. 2. 8
 - 반대투쟁위 건의된 문화체육부 답변 공문에 대한 반박성명 발표 및 유네스코 본부에 보내는 항의문 채택
- 세계자연유산 등재관련 IUCN 현지조사에 따른 반대투쟁위원회 활동
- IUCN 현지조사 : 1996. 4. 29 ~ 5. 3 (4박5일)
- 반대투쟁위원회 항의성명서 발송(투쟁위원회 대표 5인) : 1996. 6. 15
- 설악산 세계유산등재 신청철회 통보 : 1996. 7. 11
- 설악산 현지조사를 실시한 IUCN의 설악산 기술평가보고서
 - 설악산 동물생태계 미흡, 지역주민의 등재반대 등을 이유로 세계유산등재 추천이 부적절하다는 의견 제시
 - 집행이사회 심의에서도 설악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추천 될 가능성이 희박하고 부결되면 추후 등재여건이 개선된다 해도 재신청 할 수 없음
 - 유네스코 한국대표부에서 설악산 세계유산등재 신청을 철회할 것을 건의하여 문화재관리국은 외무부와 협의를 거쳐 집행이사회 심의 상정전 1996. 6. 26. 설악산 세계유산등재 신청을 철회(잠정목록 유지)

다. 의결사항

- 원안대로 접수함

5. 「한국의 전통 산사」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신청서 접수

가. 보고사항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에 소재, 7개 사찰을 포함하는 「한국의 전통산사」의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 신청서가 접수되었음을 보고합니다

나. 주요내용

(1) 신청인 : 충청북도지사, 충청남도지사, 전라남도지사, 경상북도지사, 경상남도지사

(2) 대상문화재

○ 선암사, 대흥사, 법주사, 마곡사, 통도사, 봉정사, 부석사(7개 사찰)

유산명	소재지	지정현황
선암사	전라남도 순천시 송주읍 죽학리 산802번지	사적 제507호(2009.12.21 지정)
대흥사	전라남도 해남군 삼선면 구림리 799번지	사적 제508호(2009.12.21 지정)
법주사	충청북도 보은군 내속리면 사내리 209번지	사적 제503호(2009.12.21 지정)
마곡사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운암리 567번지	
통도사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583번지	
봉정사	경상북도 안동시 서후면 태장리 901번지	
부석사	경상북도 부석면 북지리 148번지	

(3) 신청내용

○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면서 한국 산지 가람의 정형을 잘 보여주는 선암사, 대흥사, 법주사, 마곡사, 통도사, 봉정사, 부석사의 7개 사찰을 세계유산 잠정목록으로 등재 신청함.

○ 유산의 뛰어난 보편적 가치

- 잠정목록으로 등재 신청을 하는 7개 한국 전통 산사는 인도에서 비롯된 불교의 원형을 유지하고, 중국적인 요소를 계승하면서도 한국의 토착성을 농후하게 가미한 독특한 형식과 공간을 표현함. 산지라는 지형적 요인은 한국식 가람 배치 등의 전통을 낳았으며, 이렇게 해서 한국 사찰 건축은 주변경관과 조화하는 내·외부 공간을 구성함. 이들 전통 산지 사찰은 한국 불교만이 가지는 선·교 융합의 통불교적 사상과 기능, 의식, 승려, 생활, 문화 등 종합적

사찰로써 현재까지 유지되고 계승되는 지속성과 생명력을 지닌 유산임.

○ 등재기준

ii. 오랜 세월에 걸쳐 또는 세계의 일정 문화권 내에서 건축이나 기술 발전, 기념물 제작, 도시 계획이나 조경 디자인에 있어 인간 가치의 중요한 교환을 반영할 것.

- 한국은 고대부터 끊임없이 이어진 동아시아 여러 국가와의 교류를 바탕으로 다양한 불교 교리와 문화를 받아들였고, 이러한 교리들은 다시금 한국 고유의 신앙과 정서에 맞게 토착화하고 발전하게 되었음. 이런 종교적 교류에 기반하여 사찰들은 동아시아의 국제적 불교건축에 한국 고유의 사찰건축 배치 형식과 공간을 형성하였음.

iii. 현존하거나 이미 사라진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독보적 또는 적어도 특출한 증거일 것.

- 한국의 전통산사는 현존하는 불교신앙이 거쳐 온 전체적 역사적 과정을 표출함과 동시에 한국의 전통적인 건축 형식, 공간의 증거를 나타냄. 특히 유교를 지배이념으로 삼았던 조선시대에 불교가 살아남기 위해 취했던 행보들은 사찰의 입지, 가람 배치, 전각의 명칭과 기능을 통해 보여줌.

iv. 인류 역사에 있어 중요 단계를 예증하는 건물, 건축이나 기술의 총체, 또는 경관의 탁월한 사례일 것.

- 한국의 전통 산사 건축은 자연과 조화하는 유기적인 배치와 가람의 유형을 창출하였고, 특히 풍수사상의 영향을 받아 인간이 자연환경과 상생·조화해야 한다는 통합생명의 상호조절원리를 구현함. 이런 사상은 조선시대까지 전해져 하늘과 땅과 사람(天地人)을 한 몸으로 생각하여 이 땅을 길국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인식을 낳음. 한국의 전통 산사는 자연경관에 한국 전통 건축의 미를 합친 한국 전통미의 전형으로 평가됨.

vi. 사건이나 실존하는 전통, 사상이나 신조, 보편적 중요성이 탁월한 예술 및 문학작품과 직접 또는 가시적으로 연관될 것

- 한국의 전통 산사는 한국 불교만이 가지는 통불교적 사상과 신앙으로 의식, 승려, 생활, 문화 등을 행하는 종합적 사찰로써 많은 불교 문화유산과 공간을 담고 있어 이러한 의식, 공간, 기능은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음

다. 향후 계획

- 한국의 전통산사 현장실사 및 검토보고서 작성 : 2013년 하반기
- 문화재위원회 심의 추진 : 2013년 3차 회의

라. 의결사항

- 원안대로 접수함

6.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 추진현황 보고

가. 보고사항

2012년, 2013년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 추진 경과와 2014년 등재 추진 계획을 보고합니다.

나. 등재 현황 및 추진 계획

< 2012년 등재 현황 : 아리랑 >

○ 추진 경과

- 정선아리랑 등재신청서 제출 : '09.8월
- 우선 심사대상으로 아리랑 선정 : '12.1월
- 아리랑 수정 등재신청서 제출 : '12.6월
- 심사보조기구 권고안 공개 : '12.11월
- 제7차 무형유산위원회 아리랑 등재 : '12.12월

< 2013년 등재 현황 : 김치와 김장문화 >

○ 추진 경과

- 등재신청서 제출 : '12. 3월
- 우선 심사대상으로 선정 : '12. 8월
- 등재신청서 추가정보 제출 : '13. 1월
- 심사보조기구 권고안 공개 (예정): '13. 11월
- 제8차 무형유산위원회 등재 여부 결정(예정): '13. 12월

< 2013년 등재 추진 계획 : 줄다리기 공동등재 >

○ 추진 경과

- 지자체를 통한 대상종목 공모 : '12.4월
- ※ 당진시 줄다리기, 안동시 탈놀이 제출

- 세계유산분과위원회 줄다리기 공동등재 추진 종목 선정 : '12. 12월
- 무형유산분과위원회 줄다리기 공동등재 공동체범위 심의 : '13. 3월
- 줄다리기 공동등재 신청서 제출(예정) : '14. 3월

< 2014년 등재 추진 계획 : 풍물놀이 >

○ 추진 경과

- '11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 제출 : '11. 3월
- 무형유산분과위원회 '14년도 심사우선순위 종목으로 풍물놀이 선정 : '13. 3월
- '14년도 인류무형유산 심사우선 순위 유네스코 제출 : '13.6월

다. 의결사항

- 원안대로 접수함

7.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현황 보고

가. 보고사항

2013년도 세계기록유산 신규 등재 및 향후 등재 추진 계획을 보고합니다.

나. 난중일기·새마을운동기록물 신규 등재

< 신규 등재 개요 >

- 등재일자 : '13.6.18.(화)
 - 제11차 유네스코 국제자문위원회(IAC) 최종심사 및 사무총장 등재 승인
- 등재대상 : 난중일기, 새마을운동기록물 2건
- 등재현황 : 우리나라 11건 (훈민정음, 조선왕조실록, 직지심체요절, 승정원일기, 해인사 대장경판 및 제경판, 조선왕조의궤, 동의보감, 일성록, 5·18민주화운동기록물, 난중일기, 새마을운동기록물)

※ 세계현황 : 105개국 1대륙 4기구 총 300건

- 총 55건 신규 등재
- 국가별 등재 건수 : ①독일 17건 ②오스트리아 13건 ③러시아·폴란드 12건 ⑤한국 11건, 멕시코 11건 ⑦프랑스·중국 9건, 그 외 일본 3건 등

< 등재추진 경과 >

- 2013년 세계기록유산 등재신청 대상 공모 : '11.8~9월
 - 공모결과 : 3건 ('새마을운동기록물', 'KBS 영상기록물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조선의 금속활자')
- 세계기록유산 한국위원회 개최 : '11.10월
 - 공모결과물 3건과 '09년 잠정목록 2건을 통합하여 순위결정
 - 회의 결과, '난중일기'와 '새마을운동 기록물' 1, 2위 선정
- 신청대상 기록물 최종 선정(문화재위원회) : '11.10월
- 신청서 작성 및 제출(유네스코 사무국) : '12.3월

- 세계기록유산자문위원회 등재소위원회 예비심사 : '12.12월
 - 난중일기에 대한 등재 예비권고, 새마을운동기록물에 대한 추가자료 요청('12.12.17)
 - 새마을운동 관련 외국 성공사례, 시청각기록물 보존관리계획 등 제출('13.1.28)
- 세계기록유산자문위원회(IAC) 개최 및 신규 등재 확정
 - 기간·장소 : '13.6.18~21 / 광주광역시
 - 주요 내용 : 난중일기, 새마을운동기록물에 대한 IAC의 등재 권고 결정

다. 2015년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 계획

- 2015년 세계기록유산 등재신청 대상 공모 : '13.9~10월
- 등재 추진 대상 최종 결정 : '13.11월
- 세계기록유산 등재신청서 작성 : '13.12~'14.3월
 - ※ 현재 KBS에서 'KBS 영상기록물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등재 추진, 문화재청 '조선통신사기록물' 조사연구 용역 추진 중

라. 의결사항

- 원안대로 접수함